夫婦間の子女數에 關한 對話가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

目次

- I. 序 論
- II. 研究의 目的
- III. 研究資料 및 方法
- IV. 研究結果 및 考察
- V. 結 論

I. 序 論

出産力 水準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 避妊實踐이나 人工妊娠中絶, 結婚年齡 및 結婚率 등이 指摘되고 있다.¹⁾ 그러나 全般的인 社會經濟發展으로 인한 子女價値觀 變化의 影響을 排除할 수 없다.²⁾ 특히 弘報教育事業과 社會支援 政策 등으로 形成된 少子女 規範은 人口學的 效果側面에서 매우 높이 評價되고 있다.³⁾

이와 같이 出産水準을 결정하는 데는 社會文化的 또는 心理的인 여러가지 要因이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既存研究에서 情報과 意思疏通의 最終 段階인 夫婦間の 家族計劃對話 有無가 家族計劃에 關한 態도와 實踐에 影響을 미친다는 事實은 밝혀진 바 있으나,⁴⁾ 夫婦間の 女子數에 關한 對話가 出産力水準에 影響을 미치는가 하는 分析은 미비하다.

그러므로 本 研究은 夫婦間の 子女數에 關한 對話가 出産力과 어느 程度의 關聯性이 있는가를 把握하고자 한다.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研究員.

- 1) 李奎植, 李任田, “差異出産力과 避妊實踐率”, 韓國의 出産力 變動과 展望, KIPH, 1987.
 - 2) 李奎植, 金鐸一, “우리나라 人口政策의 再吟味”, 韓國人口學會誌, 제11권 제1호, 1988, 5.
 - 3) 趙南勳, “人口增加抑制 對策 綜合評價”, 1987年度 家族保健事業評價大會 報告書, KIPH, 1987.
 - 4) Brenda A. Doe, “Husband-Wife Communication and Family Planning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s in Korea”, *Journal of Family Planning Studies*. Vol. 4, KIFP, 1977, PP. 144~155.
- Styocos, J.M. et al., “Problems of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on Matters Relating to Family Limitation”, *Human Relations*, Vol. IX, No. 2, May 1956, PP. 207~215.

II. 研究의 目的

本 研究의 一般의 目的은 夫婦間의 子女數에 關한 對話가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을 把握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具體的 目的을 設定하였다.

첫째, 婦人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別 夫婦間의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率을 살펴보고, 둘째, 夫婦間의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에 따른 平均現存子女數를 把握하고, 셋째, 出産力과 夫婦間의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間의 相關關係를 分析하고자 한다.

III. 研究資料 및 方法

本 研究에 使用된 資料는 「1985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資料이며, 分析 對象은 44歲 以下의 有配偶婦人이다. 그리고 內容分析에 使用된 主要變數는 다음과 같다.

1. 從屬變數

① 現存子女數 : 出産力 指標로 出産率, 有配偶出産率 그리고 平生出生子女數, 現存子女數 등의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本 研究에서는 現存子女數를 使用하였다.

2. 獨立變數

- ① 年齡
- ② 初婚年齡
- ③ 教育水準
- ④ 居住地
- ⑤ 婚前就業狀態
- ⑥ 避妊實踐狀態
- ⑦ 아들의 必要性 程度
- ⑧ 夫婦間의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

IV. 研究結果 및 考察

1. 應答婦人의 一般特性別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은 夫婦 合意에 依한 家族計劃實踐을 유도하여 出産力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全體 應答婦人中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이 있는 婦人의 比率은 77.2퍼센트인데, 이들 가운데 첫 妊娠前·後 對話經驗 婦人은 51.5퍼센트이며, 첫 出産後 18.2퍼센트, 둘째 出産以後 8.4퍼센트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1.8퍼센트의 婦人은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이 없었다.(表1참조)

이는 金 等의 研究(1979)⁵⁾⁾에서 男便과 避妊이나 子女數調節에 대해서 얘기한 經驗이 있는 婦人의 比率이 73.0퍼센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4.2퍼센트 포인트 정도의 差異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對話時期에서는 첫 妊娠前·後 對話經驗率이 1979年의 30.1퍼센트와 비교하면 20.4퍼센트 포인트 정도의 큰 차이를 보였다.

1) 年齡別

婦人의 年齡에 따른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率은 年齡이 적을수록 더 높았다.

첫 妊娠前·後에 對話經驗이 있는 婦人의 比率을 年齡別로 살펴보면 15~24歲群이 74.4퍼센트로 가장 많으며, 25~29歲群 62.3퍼센트, 30~34歲群 54.3퍼센트, 35~39歲群 40.2퍼센트 그리고 40~44歲群 28.1퍼센트順으로 나타나서, 15~24歲群과 40~44歲群은 倍以上の 약 46퍼센트 포인트 程度의 差異를 보였다.

2) 初婚年齡別

初婚年齡別 對話經驗狀態를 보면 初婚年齡이 많을수록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率은 높아졌다.

첫 出産까지 對話經驗이 있는 婦人의 比率도 初婚年齡에 따라 많은 差異를 나타내어, 19歲以上群은 54.4퍼센트인데 反하여, 20~24歲群 70.9퍼센트, 25~29歲群 80.4퍼센트 그리고 30歲以下群은 84.6퍼센트이다. 즉 初婚年齡이 많을수록 對話經驗率이 높아짐은 물론이고, 對話時期가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金智子 外, 家族計劃 弘報 및 啓蒙教育 戰略을 위한 調查研究, KIFP, 1979.

Table 1. Percent of Husband-Wife Conversation Experience about Family Size by Women's Characteristics

應答婦人の一般特性別夫婦間子女數에 관한對話經驗率

(Unit : %)

Variable	Before or After the 1st Pregnancy	After the 1st Birth	After the 2nd Birth	Never Experienced	Total(N)
Age					
15-24	74.4	15.8	1.7	8.1	100.0(741)
25-29	62.3	22.2	4.8	10.7	100.0(1,993)
30-34	54.3	19.3	8.9	17.6	100.0(1,672)
35-39	40.2	18.4	12.9	28.6	100.0(1,353)
40-44	28.1	11.2	13.1	47.6	100.0(1,180)
Age at First Marriage					
19 or less	38.2	16.2	11.4	34.2	100.0(1,168)
20-24	51.7	19.2	8.5	20.6	100.0(4,621)
25-29	63.9	16.5	5.3	14.3	100.0(1,105)
30 or more	75.0	9.6	—	15.4	100.0(45)
Education					
Primary school or less	31.4	16.6	13.0	39.0	100.0(2,161)
Middle school	53.9	21.7	7.9	16.5	100.0(2,306)
High school	65.2	17.1	5.2	12.5	100.0(2,019)
College or more	74.7	12.7	3.5	9.1	100.0(454)
Present Residence					
Urban	54.8	18.8	7.4	19.0	100.0(5,010)
Rural	43.1	16.8	11.0	29.2	100.0(1,929)
Pre-marital Work Experience					
Employed	61.3	19.0	6.5	13.2	100.0(3,572)
Never employed	41.2	17.3	10.5	31.0	100.0(3,368)
Total	51.5	18.2	8.4	21.8	100.0(6,939)

3) 教育水準別

婦人の教育水準에 따른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率은 一貫性 있는 變化를 보여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對話經驗水準이 현격히 높아졌다. 즉, 學歷集團別 對話經驗率을 살펴보면 國民學校以下 學歷群은 61.0퍼센트인데 反하여, 中學校와 高等學校 學歷群은 각각 83.5퍼센트와 87.5퍼센트로 全體의 5분의 4를 上廻하는 水準이며, 大學以上 學歷群은 對話經驗率이 90.9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첫 妊娠前·後에 對話經驗이 있는 婦人の 比率을 비교하여 보면 大學以上 學歷群은 74.7퍼센트이며, 高等學校 65.2퍼센트, 中學校 53.9퍼센트, 그리고 國民學校以下 學歷群은 31.4퍼센트에 불과하여, 學歷集團間 對話經驗時期도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4) 居住地別

居住地에 따른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率은 市部の 경우 81.0퍼센트이며, 郡部는 70.8퍼센트로 나타나서 兩地域間에 약 10.2퍼센트 포인트 程度의 差異를 보였다.

첫 妊娠前·後에 對話經驗이 있는 婦人の 比率은 市部가 54.8퍼센트이며, 郡部는 43.1퍼센트이다.

5) 婚前就業狀態別

婚前就業經驗 有無別 對話經驗率은 큰 차이를 보여, 就業經驗이 있는 婦人の 對話經驗率은 86.8퍼센트인데 比하여, 就業無經驗 婦人の 對話經驗率은 69.0퍼센트이다. 또한 첫 妊娠前·後에 對話經驗이 있는 婦人の 比率에 있어서도 就業有經驗 婦人の 경우는 61.3퍼센트이며, 就業無經驗 婦人は 41.2퍼센트로서 두 集團間에 약 20퍼센트 포인트 程度의 差異를 나타내었다.

2.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別 差異出産力

앞 절에서 婦人の 主要特性別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率을 살펴보았으므로, 본 절에서는 對話經驗이 실제로 出産力에 差異를 가져왔는지를 把握하기 위하여 婦人の 一般性別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에 따른 平均現存子女數를 살펴보고자 한다.

全體 應答婦人の 平均現存子女數는 2.26名이며, 이 가운데 첫 妊娠前·後 對話經驗婦人の 平均現存子女數는 1.87名이고, 첫 出産以後群 2.19名, 둘째 出産以後群 3.06名이며,

對話無經驗 婦人の 平均現存子女數는 2.94名이다. 對話經驗 集團間의 平均現存子女數를 比較하여 보면, 첫 妊娠前·後群과 첫 出産後群은 平均 0.37名の 差異를 보이는데 比하여, 첫 出産後群과 둘째 出産以後 對話經驗 集團間에는 平均 1.19名이라는 큰 差異를 나타내었다. 反面,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이 전혀 없는 集團의 平均現存子女數가 둘째 出産以後 對話有經驗 集團의 平均現存子女數보다 약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出産經驗이 없는 婦人の 경우 對話無經驗 集團에 속할 可能性이 높으며, 또는 둘째 出産以後의 對話經驗은 出産力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表2 參照)

1) 婦人年齡別 現存子女數

年齡에 따른 平均現存子女數의 變化를 보면 15~24歲群은 平均 0.86名の 子女를 두고 있으며, 25~29歲群 1.61名, 30~34歲群 2.29名, 35~39歲群 2.86名, 그리고 40~44歲群은 3.51名으로 나타났다.

年齡階層別 對話經驗에 따른 平均現存子女數를 살펴보면, 15~44歲까지의 모든 年齡階層에서 첫 妊娠前·後에 對話經驗이 있는 婦人の 平均現存子女數가 가장 적으며, 그 다음이 첫 出産後 對話經驗 集團이다.

결과적으로 年齡이 많아질수록 平均現存子女數가 많아질 뿐 아니라, 同年齡階層內에서도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 有無에 따라 現存子女數에 差異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初婚年齡別 現存子女數

結婚年齡의 變動은 社會經濟變動과 關聯되어 나타나는 現象으로서 出産力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要因이 된다. 즉 Freedman은 結婚年齡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結婚期間이 짧아지고 또 可妊期間이 짧아져 出産力을 低下시킬 可能性을 갖는다는 點이다.

初婚年齡別 平均現存子女數는 19歲以下群이 3.01名이며, 20~24歲群 2.19名, 25~29歲群 1.81名, 30歲以上群 1.40名으로 初婚年齡이 높아질수록 平均現存子女數는 더 적었다.

初婚年齡別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에 따른 平均現存子女數는 一貫性 있는 變化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첫 妊娠前·後 對話經驗 集團의 平均現存子女數가 가장 적었다. 19歲以下群에서는 對話經驗 有無 및 對話時期에 따라 現存子女數에 뚜렷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첫 出産後群과 둘째 出産以後의 對話經驗 集團間에는 現存子女數가 약 平均 1名 程度의 顯격한 差異를 보였다.

Table 2.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with Husband-Wife Conversation Experience Classified by Women's Characteristics

應答婦人の一般特性別夫婦間子女數에 관한對話經驗에 따른平均現存子女數

Variable	Before or After the 1st Pregnancy	After the 1st Birth	After the 2nd Birth	Never Experienced	Total
Age					
15-24	0.74	1.35	2.18	0.69	0.86
25-29	1.49	1.69	2.27	1.85	1.61
30-34	2.20	2.21	2.58	2.52	2.29
35-39	2.58	2.75	3.27	3.16	2.86
40-44	3.07	3.55	3.84	3.67	3.51
Age at First Marriage					
19 or less	2.49	2.47	3.43	3.71	3.01
20-24	1.83	2.18	2.08	2.78	2.19
25-29	1.62	2.02	2.71	2.03	1.81
30 or more	1.44	1.23	—	1.33	1.40
Education					
Primary school or less	2.58	2.62	3.46	3.39	3.02
Middle school	1.89	2.12	2.76	2.54	2.12
High school	1.55	1.94	2.59	2.14	1.74
College or more	1.60	1.70	2.50	2.34	1.71
Present Residence					
Urban	1.79	2.10	2.87	2.69	2.10
Rural	2.12	2.48	3.38	3.37	2.68
Pre-marital Work Experience					
Employed	1.57	1.94	2.58	2.13	1.78
Never employed	2.33	2.49	3.37	3.31	2.77
Total	1.87	2.19	3.06	2.94	2.26

3) 教育水準別 現存子女數

教育은 出産行態나 出産態度에 重要한 決定因子가 되며, 教育水準은 出産力과의 關係에 있어서 負의 相關關係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教育水準別 平均現存子女數는 國民學校以下群이 3.02名으로 가장 많은 現存子女를 두고 있으며, 中學校群 2.12名, 高等學校群 1.74名, 大學以上群은 1.71名이다.

教育水準別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에 따른 平均現存子女數는 모든 教育階層內에서 一貫性 있는 差異를 보여, 첫 妊娠前·後群의 現存子女數가 가장 적으며, 그 다음이 첫 出産後 對話經驗 集團으로 나타났다.

教育階層別 對話經驗 集團間 差異를 살펴보면, 첫 妊娠前·後群과 첫 出産後群間에는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差異가 조금 더 많으며, 첫 出産後群과 둘째 出産以後群과의 現存子女數 差異는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커졌다.

4) 居住地別 現存子女數

居住地에 따라 出産力 水準도 달라진다. 地域的 背景과 出産力과의 關係는 주로 都市化 측면에서 分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一般的으로 開發途上國등에 있어서 都市化가 出産力을 낮추는 한 要因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居住地別 現存子女數를 보면, 市部는 平均 2.10名이며, 郡部는 2.68名으로 두 地域間에 약 0.6名 程度의 差異가 있다.

같은 居住地域內에서도 對話經驗에 따라 現存子女數에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즉, 市地域의 경우 첫 妊娠前·後群의 平均現存子女數는 1.79名이나, 첫 出産後群 2.10名, 그리고 둘째 出産以後群은 2.87名이다. 郡地域에서는 첫 妊娠前·後 對話經驗 集團의 平均現存子女數는 2.12名이며, 첫 出産後群 2.48名, 둘째 出産以後群 3.38名으로, 對話經驗別 平均現存子女數는 市部보다 郡部에서 더 큰 差異를 나타내었다.

5) 婚前就業狀態別 現存子女數

婦人の 結婚前就業經驗과 出産力과는 逆의 相關關係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婚前就業狀態別 現存子女數를 살펴보면 婚前就業有經驗 婦人の 平均現存子女數는 1.78名이며, 婚前就業無經驗 婦人の 現存子女數는 平均 2.77名으로, 두 集團間에 약 1名 정도 的 差異가 있다.

對話經驗에 따른 現存子女數는 婚前就業經驗有·無 두 集團 모두에서 差異를 가져왔

다. 즉 婚前就業經驗 婦人中 첫 妊娠前·後群은 現存子女數가 平均 1.57名인데 比하여 첫 出產後群은 1.94名이며, 둘째 出產以後群은 2.87名이다.

以上에서 婦人의 主要特性에 따라 現存子女數에 差異가 나타남은 물론이고, 같은 特性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을 언제 가졌냐에 따라 出產力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夫婦間의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과 出產力과의 相關關係

相關分析(Correlation Analysis)은 두 變數間의 關聯程度를 예측하는 것으로 關聯性的 發見, 한 變數에 依한 다른 變數의 發見 그리고 測定檢査의 信賴度(reliability)와 妥當度(validity) 등을 검토하는데 使用된다.

現存子女數(出產力)와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과의 相關關係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相關係數(Pearson's Coefficient of Correlation)을 구하여 <表3>에 提示하고 있다.

相關關係 行列表를 살펴보면, 現存子女數는 婦人年齡과 가장 높은 相關係數值(+0.66)를 나타내고 있으며, 教育水準, 婚前就業狀態, 夫婦間의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 初婚年齡, 居住地 順으로(-)相關性を 보이고 있으며, 아들의 必要性 程度와 避妊實踐狀態는 (+)相關性を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出產力에 영향을 미치는 諸般 人口社會的 要素들 中에서,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은 現存子女數와의 相關係數가 -0.37로서 他變數에 比하여 比較的 높은 相關係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相關關係란 두개 變數의 相關程度와 方向을 垂直的으로 표현한 것이지, 두 變數間의 直接的인 因果關係가 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

出產力과 夫婦間 對話經驗의 因果關係를 보다 명백히 糾明하기 위하여 回歸分析을 實施하였다. <表3>의 相關關係 行列表에서 나타났듯이 年齡은 出產力과 0.66이라는 높은 相關性を 보였기 때문에 獨立變數에서 제외시켰으며, 概念的 分析模型에 따른 回歸分析 模型은 다음과 같다.

$FER = C_1 + \alpha_1 EDU + \alpha_2 PMW + \alpha_3 COM + \alpha_4 AFM + \alpha_5 SON + \alpha_6 CPR + \alpha_7 RES$ 이며, 回歸分析 結果는 <表4>에 提示하였다.

이 模型에 의하여 說明할 수 있는 出產力 變動은 33퍼센트로서 크게 높지는 않으나,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Independent Variables with Fertility

相關係數 行列表

Variable	RES	AGE	EDU	PMW	AFM	CPR	SON	COM	Zero-Order Coefficient Correlation for Fertility
RES (Present Residence)	1.0000	-0.0536*	0.2760*	0.1660*	0.1504*	0.0067	0.1533*	0.1324*	-0.2064*
AGE (age)		1.0000	-0.2524*	-0.4004*	0.0419*	0.0488*	0.2183*	-0.3725*	0.6632*
EDU (Education)			1.0000	0.3152*	0.3704*	-0.0024	-0.2521*	0.3193*	-0.3922*
PMW (Pre-marital Work Experience)				1.0000	0.2174*	0.0024	-0.1603*	0.2462*	-0.3913*
AFM (Age at First Marriage)					1.0000	-0.0402*	-0.1434*	0.1975*	-0.3224*
CPR (Contraceptive Practice)						1.0000	-0.0013	0.0130	0.1008*
SON (Necessity Degree of Son)							1.0000	-0.1687*	0.2738*
COM (Husband-Wife Communication)								1.0000	-0.3702*

*Significance level : $P < 0.01$

Table 4. The Effect of Variables on Fertility

回歸分析 結果(從屬變數：現存子女數)

Independent Variables	b	BETA	SE	R ² Addition
EDU	-0.20546	-0.14974	0.01593	0.15385
PMW	-0.58447	-0.23068	0.02685	0.07955
COM	-0.21715	-0.20810	0.01103	0.04650
AFM	-0.68730E-01	-0.14374	0.00512	0.02078
SON	0.18836	0.13464	0.01436	0.01778
CPR	0.16316E-01	0.09843	0.00163	0.00958
RES	-0.16295	-0.05765	0.02913	0.00302
(CONSTANT)	4.71262			

Multiple R = 0.57537 b significance level is under 0.001.
R Square = 0.33105 BETA significance level is under 0.01.
Adjusted R² = 0.33037
N = 6,939

回歸係數의 全般的인 有意水準과 各 回歸係數들의 個別的 有意水準은 統計的으로 有意性을 가지는 結果를 보였다.

7個의 獨立變數中 가장 重要한 變數로 지적되는 變數는 婚前就業狀態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으로 標準回歸係數의 값이 -0.2081이다. 즉, 出產力에 夫婦間 對話經驗이 他變數에 比하여 有意하게 影響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이 出產調節 側面에서 상당한 寄與度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V. 結 論

「1985年 全國 出產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資料에서 44歲以下 有配偶婦人을 對象으

로 分析한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가 出産力에 미치는 結論을 얻었다.

1. 全體 應答婦人의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率은 78.2퍼센트로서 첫 妊娠前·後 對話經驗率은 51.5퍼센트이며, 첫 出産力 18.2퍼센트, 그리고 둘째 出産以後 8.4퍼센트로 나타났다.

2. 應答婦人의 一般特性別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은 婦人의 年齡이 적을수록, 初婚年齡이 많을수록,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居住地域이 市部일수록, 그리고 婚前就業經驗이 있는 婦人일수록 對話經驗率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夫婦間 子女數에 關한 對話經驗別 差異出産力에 대하여서는 應答婦人의 諸般特性에 따라 出産力에 差異를 가져왔으며, 同 特性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對話經驗有無 및 時期에 따라서 出産力이 달라졌다. 즉 첫 妊娠前·後나 첫 出産後에 對話經驗이 있는 集團이 平均現存子女數가 他集團에 比하여 약 1名 程度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夫婦間의 子女數에 關한 對話가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을 分析하기 위하여 婦人의 教育水準, 婚前就業狀態, 夫婦間 對話經驗, 初婚年齡, 아들의 必要性 程度, 避妊實踐狀態, 居住地 등을 獨立變數로 하고, 現存子女數를 從屬變數로 하여 回歸分析하였으며, 그 結果에서 夫婦間 對話經驗이 影響을 주고 있으므로, 出産調節側面에서 상당한 寄與度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差異出産力에서 나타났듯이 첫 出産까지의 對話經驗은 出産力에 많은 影響을 주고 있으나, 둘째 出産以後의 對話는 出産力에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新婚初에 夫婦間 子女數 決定에 關한 對話經驗을 가질 수 있는 雰圍氣를 造成하여 주고, 少子女 價値觀을 確立시킬 수 있는 弘報活動이 實現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康順玉, “家族計劃에 對한 夫婦間의 對話가 그 實踐에 미치는 影響”, 公衆保健雜誌, 第12卷 第1號, 1975.

金智子 外, 家族計劃 弘報 및 啓蒙教育 戰略을 위한 調查研究, KIFP, 1979.

李奎植, 金鐸一, “우리나라 人口政策의 再吟味”, 韓國人口學會誌, 제11권 제1호, 1988.5.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年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查, 1985.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韓國의 出産力變動과 展望, 1985.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1987.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年度 家族保健事業 評價大會 報告書, 1987.

Doe, Brenda A., "Husband-Wife Communication and Family Planning Knowledge, Attitudes in Korea", *Journal of Family Planning Studies*, Vol. 4, Seoul : KIFP, 1977.

Kim, Joung Im and James A. Palmore, *Personal Networks and the Adoption of Family Planning in Rural Korea*, Honolulu : East-West Center, 1978.

Mitchell, R. E., "Husband-Wife Relations and Family Planning Practices in Urban Hong Ko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2, pp.139~146.

Palmore, James A., Michael J. Furlog and Francis X. Buchmeier, "Family Planning Opinion Leadership in Korea 1971",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VII, No. 12, New York : P.C., 1976.

Rogers, Evert M. and Floyd Shoemaker, *Communication of Innovations : A Cross-Cultural Approach*, New York : Free Press, 1971.

Stycos, J. Mayone, Kurt Back and Reubin Hill, "Problems of Communica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on Matters Relating to Family Limitation", *Human Relations*, Vol. IX, No. 2, May, 1956.

Abstract

Impact Analysis of Husband-Wife Conversation about Number of Children

Young-Hie Oh*

This article aimed at drawing impact on number of children by the conversation of husband-wife among target women, utilizing the data of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in 1985.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At the time of the Survey, 78.2 percent of currently married women aged 15 to 44 had experienced husband-wife conversation about family size : 51.5 percent of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conversation before or after the first pregnancy, 18.2 percent after first birth, and 8.4 percent after second birth.
2. When classified by general features of married women aged 15 to 44, husband-wife conversation about number of children showed high rate among the younger women, among the women with the higher age at first marriage, and among the women with the higher education, and pre-marital work experience.
3. Husband-wife conversation about number of children had impact on fertility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arget women, showing a difference according to conversation experience and time. Mean number of children among women with conversation experience before or after the first pregnancy, or after the first birth is one less than that of the other women.
4. To analyze the impact on fertility with conversation about the number of children, educational level of women, work experience before marriage, conversation experience about family size, age at first marriage, necessity degree of son, contraceptive practice, areal difference a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number of living children as dependent variable.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is of the above data show that conversation experience between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couple has significant effects on fertility rather than other variables, thus has contributions to birth control. Conversation experience before the first live birt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fertility, but it does not bring about a big difference after the second live birth.

Thus it is expected that conversation about number of children between husband and wife be made at early stage of marriage, and recommended that public relations contribute to spread fewer-children-orientation.